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3월 22일 (제78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목적의식

한 젊은이가 장에 소를 사러 갔다. 소를 사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소매치기, 일명 쓰리꾼이었다. 쓰리꾼 두 명은 이 젊은이를 두고 내기를 했다. 한 쓰리꾼이 소를 쓰리하겠다고 했다. 다른 쓰리꾼이 주머니를 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소를 쓰리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그는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 이 쓰리꾼은 신발 가게에 들어가 제일 좋은 고무신을 한 켤레 샀다. 그리고 젊은이가 돌아갈 길에 앞서 가서 신발 한 짝을 흘려놓고 조금 더 가서 커브 길을 지나 나머지 한 짝을 땅에 흘렸다.

한편 소를 사가지고 신이 나서 집에 돌아가던 젊은이는 길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이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짚신을 신고 있던 그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주위 신어보니 발에 딱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뭐하랴, 한 짝 밖에 없는 걸. 하여 아깝지만 그냥 버리고 가다 커브 길을 돌아는데, 아~ 또 한 짝이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아닌가. 한 짝을 든 젊은이는 아까 버리고 온 신발 한 짝이 생각났다. 하여 길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고 해서 길 가 나무에 소를 묶어놓고는 나머지 신발 한 짝을 찾으러 뛰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소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현주소다. 목적을 향하여 가다 작은 것에 눈이 멀어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이 많다. 호랑이를 잡겠다고 해놓고 토끼가 지나가면 토끼 잡느라 이리저리 뛰는 경우다. 목적을 세웠으면 귀는 막고 눈을 크게 뜨고 목적만을 바라보고 가야한다. 세상에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빌3:13~14)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알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다.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를 철학적 성찰의 결과로 이러한 화두를 던진 것이겠지만, 사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어둠 속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통탄스러우실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입은 하나님 본체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의 사슬에 매여 종노릇하

사 부부, 사무엘(Samuel) 목사, 엑포르(Hector) 집사와 반갑게 해후했다.

도착 이튿날, 첫 공식 스케줄로 진행된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갖춰야할 자세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할 것과 기도하여 하늘의 능력을 받을 것, 또한 매사 하나님 우선주의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셨다. 세미나 강의를 마무리하며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데, 대학교수이며 멕시코 축구대표팀의 주치의를 맡고 있다는 한 인사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눈물로 목사님께 감사를 표했다. 그는 “따로 드릴 질문은 없

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모습이였다. 추위로 움츠러들었던 성도들도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에 전염되어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였으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개의 새끼는 개요, 소의 새끼는 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



멕시코 몬테레이 집회 광경

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린 인간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닮았다. 너희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 아니겠는가!

목사님은 금번 멕시코(Mexico) 몬테레이(Monterrey) 집회를 진행하시며 시간 시간마다 거듭해서 이 주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 ‘너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12년 만에 집회를 위해 다시 찾은 몬테레이 공항에는 오랜만에 헤라르도(Gerardo) 목사의 반가운 영접을 받았다. 또한 집회주관자인 로베르토(Roberto) 목

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다.”며 울먹였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며 멕시코 선교 14년에 역시 발이 잘 갈려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저녁 집회는 멕시코 역사박물관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로 야외집회인지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목사님도 한국 성도들에게 합심으로 날씨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셨다. 그러나 마치 우기(雨期)처럼 연일 비가 내렸고, 덩달아 습기에 스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되었고, 목사님은 더욱 기도에 전무하시

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든지 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설교에 이어 단에 올라온 소경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는 역사가 이어졌다. 모인 무리가 하나님께 박수와 환호성으로 영광을 돌렸고, 처처에서 눈물짓는 성도들이 모습이 눈에 뜨였다. 추운 날씨로 인해 힘겨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아주 뜨겁게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 주에 계속)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한다



몬테레이 목회자 세미나 광경



소경이 눈을 뜬 후 기쁨으로 찬양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1:1~4)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바다에 크고 작은 파도가 늘 몰려오듯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마6:13)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은 역사하지 않지만, 시험은 하십니다. 곧 테스트(test)요, 훈련(training)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1:6~7).

이 말씀은 제가 예수를 영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데 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둘째는 야고보서 1장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트레이너가 선수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훈련을 시키듯,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물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이 오는 것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느

는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다섯째,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신8:16).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나’ 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의 시험은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시험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시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험 역시 동일합니다. ‘계속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본인들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부자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사울이 광야에 살고 있는 아말렉을 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짐승까지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안 들은 것인지는 역시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이 십일조를 하느냐 마느냐, 철야예배에 나오느냐 마느냐’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른 하나는 용처럼 불가항력의 시험, 곧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험입니다. 욥은 갑

자기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몸

에 악창이 나는 시험이 몰려왔습니다. 욥이 어쩔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불어온 시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가 어느 날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리고, 옥에 들어가는 등의 시험은 불가항력의 시험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혹은 아내나 남편을 잃는 경우를 봅니다. 더러는 불치병에 걸리거나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든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불가항력의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

친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일까요? 먼저는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여호와께 기도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할 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기뻐하시며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할 때 그를 급히 부르시며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하신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과 다니엘, 그의 친구들이 받은 복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험을 통과

하지 못한 아담이나 사울도 기억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둘째,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시험이 왔을 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버텨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욥이 오래 참았더니 자식이 살아왔습니까? 재산이 돌아왔습니까? No. 이미 모든 상황은 끝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있다

났습니다. 여기서 욥의 인내란 하나님을 끝내 원망하지 않고 버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식을 살려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식을 주시고, 새로운 기업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의 시험은 버티는 것이 장땡입니다. 요셉도 때가 올 때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의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죽기 살기로 버티십시오.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친들이 받은 축복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축복의 찬스요,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2~13).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오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만일 선택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애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버티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은 축복의 통로요 내 인생의 성장촉진제다

넘어지지 않고 달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유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렘20:12). 하나님은 우리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을 모르기 때문에 좀 알라고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옥에 가시면 옥에도 같이 가고, 죽으시면 같이 죽겠다고 했습니다(눅22:34). 그러나 막상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 때 알았습니다. 우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불신(不信), 무례(無禮), 조금(躁急)

1960년대 우리나라엔 ‘3대 망국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다. 한센병과 결핵, 그리고 기생충이 그것이다. 한센병이라 하면 천형(天刑)이라 일컫는 문둥병을 말하는 것이니 의당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어버린 결핵과 기생충이 망국병이라니? 고개가 절로 가웃겨려진다. 하지만 그땐 그랬다. 그 때는 배고팠던 시절이었고, 때문에 환경을 돌아볼 여력 또한 없었다. 1965년 당시 서울시민 380만 명 가운데 무려 280만이 결핵 환자였다고 한다. 게다가 국민의 80%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으니 이쯤이면 가히 국력을 좀 먹는 망국병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대한민국. 배고픔은 사라졌고 주거환경은 놀랍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망국병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신종 망국병’은 무엇인가?

필자는 ‘불신(不信)과 무례(無禮), 그리고 조금(躁急)’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신주의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는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정치권에선 여야(與野)가, 사회에서는 노사(勞使)가, 학교에서는 사제(師弟)가, 심지어 가정에서는 가족끼리도 믿지 못해 서로를 향해 핏대를 올리는 현실이다. 무례의 정도는 어떠한가! 크기복례(克己復禮)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쌍사나운 장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매스컴에 차고 넘치고 있다. 날로 더해가는 조금증은 말할 것도 없다. 성급하게 등을 돌리고, 또한 성급하

게 폭발하더니, 급기야 성급하게 자멸하는 여러 군상들…。 이 신종 망국병을 퇴치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렇다면 이 망국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극단으로 팽배해진 이기주의 때문이다. 오직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자기만 유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문제인 것이다. 온 국민의 치를 떨게 했던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보자. 강남대로에서 술에 취해 광란의 질주를 벌인 고급 외제차(벤틀리) 사건은 어떤가! 주차 요원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 또한 같은 연장선에 있다.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엔 ‘불신, 무례, 조금’을 촉발시키는 저질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의 이기주의에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나’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나’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 중심의 사회, 더 나아가 ‘예수’가 중심이 된 사회를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사 외에도, 말씀으로 다져진 성숙한 인격은 필수다. ‘네 탓이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내 탓이오’ 하는 자세로 문제를 떠안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너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신현명 목사

소통과 불통

21세기 미디어의 화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이다. 과거 우리는 신문이나 TV 등 언론매체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데 그쳤다. 2015년 현재, 우리는 인터넷 신문기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 댓글을 달기도 하고, TV 뉴스에 제보를 할 때도 있다. 이전까지는 ‘관람식 정보전달’이었다면 이제는 소통을 강조하는 ‘참여형 정보전달’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부터 10년 전, 아프리카 TV라는 1인 인터넷 플랫폼 방송시스템이 생겼다. 이 플랫폼은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사례로 1명의 출연자가 카메라, 마이크,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든지 다양한 주제(공부, 게임, 스포츠 등)로 방송을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는 유명후보들의 실시간 선거운동 방송으로 활용돼 주목을 받았으며, 당시 선거방송 누적 시청자수는 하루 평균 10만 명에 이르렀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월까지 누적 시청자수는 40만 명에 이른다.

공중파도 케이블도 아닌 이 인터넷 플랫폼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유저(user)들과의 소통이다. 1인 BJ(방송 진행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유저들과의 소

통으로만 채운다. TV로 치자면 시청자와 다름없는 사람들과 늘 소통을 하며 방송을 한다.

이 플랫폼의 발전으로 최근 MBC에서는 이 플랫폼을 그대로 착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첫 회에서는 소통을 가장 강조한 출연진이 방문객수를 가장 많이 얻어 프로그램 내에서 우승하였다.

우리 교회에도 강력한 소통의 대가가 있다. 그 분은 바로 총회장 목사님이다. 모든 성도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어느 한 영혼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신 적이 없다. 성도들이 어느 날 목사님의 하얀 양복이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니 다른 패셔너블한 양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성도들이 목사님께 단에서 다리를 꼬고 앉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니 다리를 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의자를 준비해 다리를 꼬지 않으셨다. ‘우리 교회의 제일 높으신 분이 고 굳이 저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의 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답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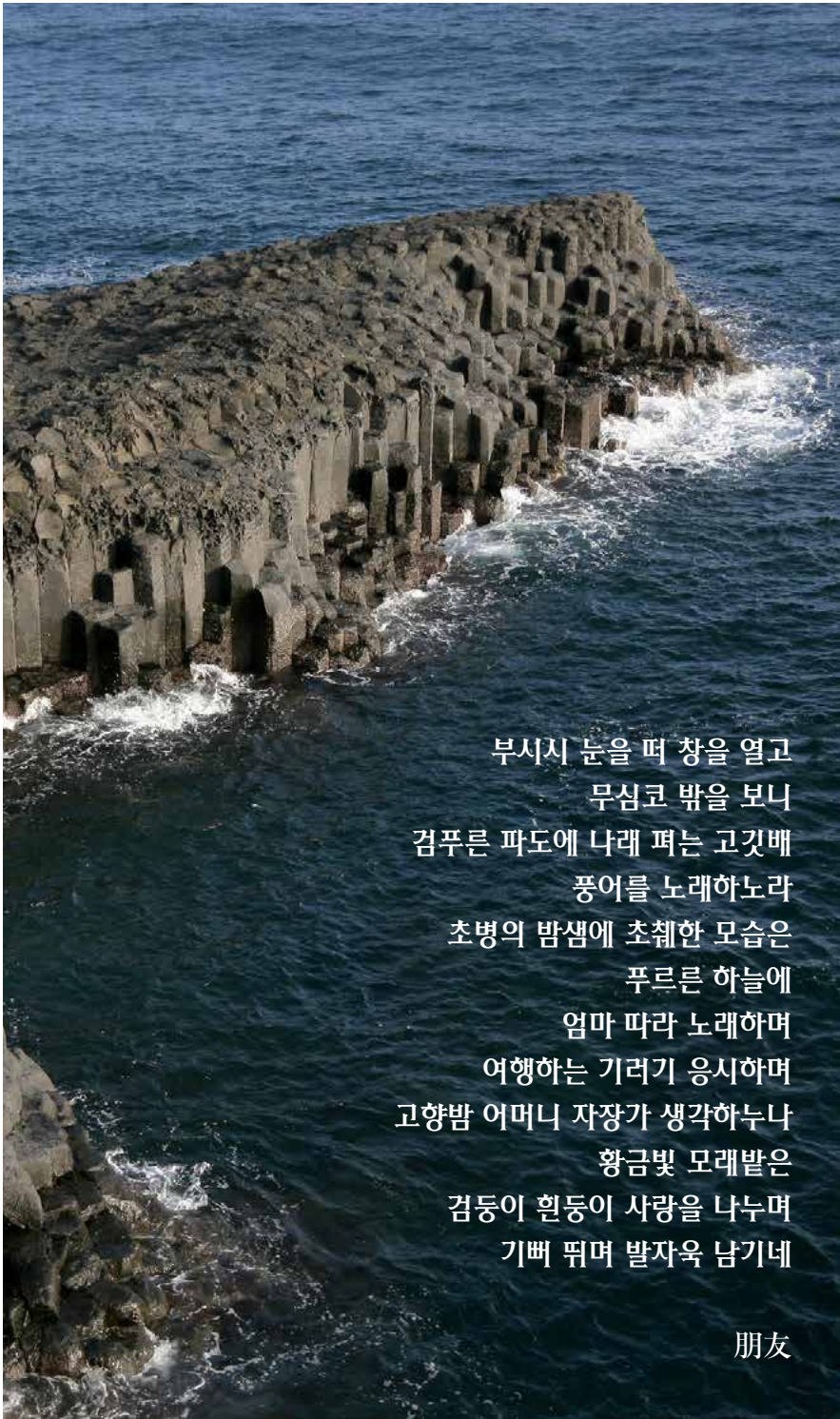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소통의 최고봉이다. 우리는 누구나 항상 일방적인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의견은 구하지 않은 채 몇 년째, 몇 십 년째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본인의 의견만 생각하고 기도한다. 기나긴 시간 때론 감사기도, 때론 원망기도, 때론 험박기도 등 우리의 이런 일방적인 기도엔 하나님의 인내심은 항상 저 바다보다 넓어 늘 인자하심으로 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린 우리의 일방적인 기도만 더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소통을 바라면서 나는 하나님께 불통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될 수 없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견을 구하고 듣고 행동해야 한다. 그동안 하나님께 불통했던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소통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임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삼상 3:10).

송현해

charisma0691@hanmail.net



부시시 눈을 떠 창을 열고
무심코 밖을 보니
검푸른 파도에 나래 펴는 고깃배
풍어를 노래하노라
초병의 밤샘에 초췌한 모습은
푸르른 하늘에
엄마 따라 노래하며
여행하는 기러기 응시하며
고향밤 어머니 자장가 생각하누나
황금빛 모래밭은
검둥이 흰둥이 사랑을 나누며
기뻐 뛰며 발자욱 남기네

朋友

::승리하는 삶::



귀를 기울이세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은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정규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어려웠지요.

하루는 어린 힐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자 그걸 들던 친구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됐지만 네 꿈을 이루는 건 불가능해 보여.” 그날 이후 힐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제일 좋은 사전 한 권 샀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훌륭한 글 솜씨를 갖추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가 사전을 사자마자 했던 일은 사전에서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찾아 그 부분을 아예 오려낸 것이었습니다. 힐은 자신의 사전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아예 제거해 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작가로 성공한 뒤로도 사전이 새로 생길 때면 어김없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 위에 검은 줄을 그었다고 합니다. 훗날 청중 앞에서 ‘불가능’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 왔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제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우리의 인생 사전에서 지워버립시다. “Impossible”에 점 하나만 잘 찍으면 됩니다. “I’m possible(나는 할 수 있다)! ”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혈액암을 고침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이던 13세 때의 아드리안



아드리안 목사와 함께

금번 멕시코(Mexico) 몬테레이(Monterrey) 집회는 지난 2003년 이후 무려 1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집회라 감회가 남달랐다. 몬테레이는 멕시코 북부의 거점도시이다. 따라서 2003년 이후에도 여러 번 이 도시를 거치며 멕시코의 다른 도시에서 집회를 열곤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쁜 것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0여 년 전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번 방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이다.

도착 첫날, 우리는 집회를 주관한 로베르토(Roberto) 목사 일행의 영접을 받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KFC를 찾았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경제적이고, 시간 절약되고, 몸에도 좋다는 것이 목사의 지론이다. 아닌 게 아니라 남미 사람들은 음식을 각자 주문하기 시작하면 음료수 따로, 메인 음식 따로, 디저트 따로 해서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게 될 때는 뷔페식당이나 KFC가 제격이다.

그런데 함께 한 일행 가운데 한 젊은 친구가 테이블 끝에 앉아 목사의 말씀을 경청하며 매우 은혜를 받고 있기에 '참 팬'

은 친구다'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드리안(Adrian aguirre), 24세의 젊은 목사다. 11년 전 몬테레이 서쪽 근교 도시 살띠조(Salttillo)에서 헤라르도(Gerardo) 목사가 주관한 집회가 있었다. 당시 아드리안은 13세 소년이었고, 혈액암에 걸려 의사는 이틀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더구나 그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가 보여주는 당시 사진을 보면 바짝 마르고 초췌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였다. 아직 신앙이 없는 상태였는지라 집회 중에는 차마 앞에 나가 안수를 받지 못했고,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사무실에서 다과를 들고 계신 자리에 찾아가 기도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목사님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으라는 기도를 해주셨다고 한다. 그게 다였다. 그런데 이틀밖에 더 살지 못할 거란 그가 목사님의 기도에도 고침을 받아 지금 11년째 멀쩡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목사까지 되어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실감하리라 믿는다. 아드리안 목사는 집회기간동안 차를 운전하며 목사님을 직접 모시고 다녔다. 목사의 손길을 통하여 새 삶을 살고 있는 그가 무려 11년 만에 찾아오신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목사님은 집회기간동안 공식적으로도 7번 설교하셨고, 사석에서 하신 설교까지 포함하면 10회가 넘는 설교를 하셨다. 그 자리에 늘 함께 했던 아드리안은 목사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멕시코를 떠나던 날, 공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그는 카우스보턴이 든 작은 선물상자를 목사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목사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24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의 입에서 이러한 믿음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울컥하며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님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보람 되실까? 또한 목사님을 도와 일하는 우리로서도 그의 밝은 표정과 듣기에도 아름다운 그 말들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멕시코 선교 14년이다. 그동안 목사님이 다닌 멕시코 도시만도 50개 도시가 넘고 방문횟수는 70회가 넘는다.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그 도시를 떠날 때마다 늘 하시는 기도가 있다.

"종이 다년간 자국이 꼭 남게 하소서." 어디 아드리안 뿐이겠는가? 로베르토 목사의 사모도 헤라르도 목사가 주관한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 로베르토 목사의 교회는 몬테레이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한다.

사비나스(Sabinas)의 로헬리오(Rogelio) 목사가 한 이야기가 있다. 그가 한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군대를 양성하여 중남미 전체를 복음화하더라는 것이다. 그 역시 후두에 생긴 종양으로 고통받다가 목사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은 사연을 갖고 있다.

해외선교 15년째 접어든다. 목사님이 다녀간 나라나 도시마다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매 도시마다 마지막 집회를 마치며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말고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떠나오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빈대의 교훈

현대그룹 고(故)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화입니다. 정 회장이 젊은 시절,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자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노동자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곤에 찌든 그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빈대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여 잠을 자려고 하면 빈대들이 물어뜯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빈대들을 잡아보기도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긴 나무탁자를 만들어 그 위에서 자려고 했지만 빈대들은 포기하지 않고 상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안 되겠다 싶던 그는 이번에는 세숫대야 같은 그릇 네 개를 구해다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상다리를 그 그릇 속에 담가 놓았습니다. 빈대가 물을 어떻게 통과하랴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며칠 동안은 빈대가 물지 않아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빈대가 물어서요. '아니, 어떻게 물그릇을 통과한 거야?' 하며 그는 불을 켜고 어떻게 된 일인가 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 그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빈대 같은 보잘것없는 미물도 목표를 향한 노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질주하여 당대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는 후에 노력해보지 않고 안 된다, 못한다 하는 부하직원들에게 '빈대보다 못한 놈'이라고 책망했다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Good News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는 과도한 빛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빛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권리를 제한 당하고 마치 노예처럼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악덕 고리대금업자여서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빚은 순식간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 되었습니다. 외판 곳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생활하며 그 빚을 청산하려고 몸부림 쳐보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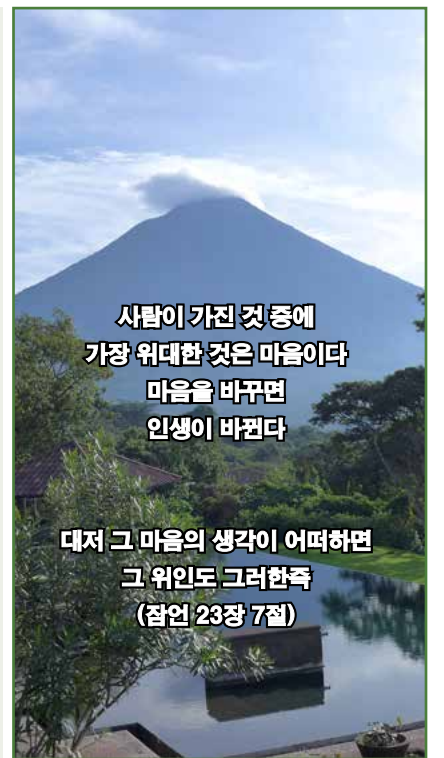
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때 이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된 엄청난 부자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청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딱히 갈 곳도 없는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자기의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며 꿈과 같은 일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녕 죽어야 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에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 빛이 후손들에게도

대물림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

그런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 값을 다 청산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이것이 복된 소식이며, 구원의 진리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